

協會記事

第6回 理事会 開催

本회 제6회 理事會가 지난 4월20일 본회 회의실에서 任員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具珣會 會長 主宰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運營 職制로 總務理事制을 채택하는등 5개항에 대한 案件이 決議되었다.

이날 決議된 主要案件 內容은 다음과 같다.

總務理事에 安箕泰 理事 選任

—業務효율화 위해 새職制 잠정 시행—

本회는 제반여건상 定款에 명시되어있는 常勤부회장制를 實施하지 못하는 것을 補完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꾀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업무능력을 提高키 위해 理事會의결을 거쳐 잠정적으로 總務理事職制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집행실시키로 하고 安箕泰理事를 總務理事로 選任했다.

職員採用 銓衡小委 構成

한편 理事會에서는 본회에서 公開採用키로한 신규직원 에 대한 전형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문지상을 통해 公募한 이번 신규직원모집에는 총 1백25명이 응모했으며 小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

小委名單은 다음과 같다. △安箕泰總務理事 △朴成圭 監事 △金枝泰서울支部長 (以上 3名)

南陽分所設置 보류키로

京畿道支部가 승인요청한 산하 南陽分所設置 승인요청 은 당분간 보류키로 결의했다.

理事會는 同分所의 지역적 여건과 會員에 대한 동태 파악이 어려운 점을 들어, 分所 승인요청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建築研委·倫理委員長 변경 선임

理事會는 各 委員會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建築研究委員會와 倫理委員會의 委員長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선임했다.

△建築研究委員長=安箕泰理事

△倫理委員長=閔榮基理事

建築士 特別銓衡 시험 실시

—本회 회원 5백여명 응시—

건축사 특별전형이 건설부 공고에 따라 지난 4월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市内 漢陽工高와 弘益大學校에서 각각 필기 및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전형은 대체로 예년에 비해 까다로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이번 전형에는 본회 회원중 약 5백여명이 참가했다.



淨化運動 강력추진키로

—부조리사례 각지부에 시달—

本회 淨化推進委員會는 범국민적으로 확산 추진되고있는 淨化운동에 발맞춰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키 위해 부조리의 유형별 사례를 명시, 이의 근절을 본회 산하 각지부 및 소속 회원에게 시달했다.

本회의 이같은 방침은 건축계의 건전한 육성과 새로운 建築士像 정립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척결되어야 할 부조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설계보수액 부당덤핑 △ 공사감리 불철저 △ 위법 불실설계 △ 명의대여 △ 부당한 동업 △ 건축사 업무처리를 위한 금품 수수행위 등.

事務局長 會議 열어

—會長運營方針 시달—

올들어 첫번째 사무국장 회의가 지난 4월28일 本部會議室에서 열렸다.

본부 및 각지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대

리에서 승진발령된 任仁懋事務處長 主率로 진행되었다.

任처장은 이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책임감을 절감하고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具琬會회장의 운영 방침으로 ① 질서있는 사무체제 확립과 ② 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 ③ 총화로 난관극복 등을 시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청산키로 한 회원복지기금의 조성금액을 정확히 파악, 위원회에 대비토록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지부의 건의사항을 취합한후 이의 조속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각 지부별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산지부: 제반법규에 대한 질의시 신속한 회시요망
- △경기지부: 설계용역의 사전선정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 요망.
- △강원지부: 삼척군의 합동사무소 해체건에 대한 회시.
- △전북지부: 통일된 서식 발간배부 요망.
- △전남지부: 新入會員에 대한 지원사항 이행과 會誌의 支部配本 요망.
- △경북지부: 納稅組合設置件과 건축사행정처분 완화에 대한 설명요망.



新規職員 6名 採用

본회는 지난 4월 부터 實施한 신규직원채용선발을 매듭짓고 새로 6명을 인사발령했다.

신문지상을 통한 公開募集으로 實施한 이번 신규 직원 公募에는 총 1백25명이 응모, 약 20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심사소위원회의 엄격한 1차 선발과 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2차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된 신규직원은 부장급 3명과 담당 중견직원 3명이다.

한편 본회는 이들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지난 1일 회장실에서 갖고 부서별 배치를 끝냈다.

具琬會회장은 사령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인사방침에 따라 엄선된 여러분들에 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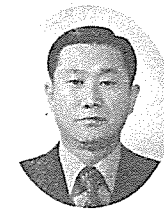
기대가 크다”고 전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해 열과 성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6명에 대한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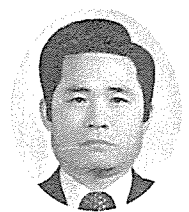
- △技 術 部=韓賑澤(부장대우·45세·前 영등포 구청 건축과장)
金聖培(지도담당·33세·前 삼풍기업건축부)
- △企 副 部=李尚允(실장대우·45세·前 해군중령)
權五成(기획담당·28세·前 삼용관광)
- △出版事業部=李載景(부장대우·44세·前 건축학회사무국장)
權熙用(출판담당·35세·前 (주)태화과장)



韓賑澤



李尚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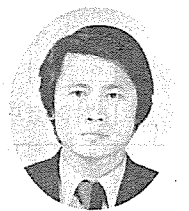
李載景



金聖培



權五成



權熙用

本會 5月中 業務計劃樹立

본회는 本部 職員의 補強으로 各部署別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실천력 提高를 위해 月中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수시점검을 實施키로 했다. 수립된 5월중 부서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總 務 部=① 會員福祉年金會清算作業完了
② 비품 및 도서점검
③ 세입·세출 및 資金計劃수립
④ 각종 規程改正作業
⑤ 新規직원 오리엔테이션
⑥ 일선업무 취급요령 지침서 作成
⑦ 기타 미결업무完了
- △企副調査室=① 淨化운동 추진실적·평가 분석

- ② 회원업무 위축에 따른 업무·예산 분석평가
- ③ 의료보험실시 연구
- ④ 회원복지연금제도 실시방안
- ⑤ 납세조합 결성안
- ⑥ 협회운영에 대한 건축집행방안
- ⑦ 기타 통계자료

△技 術 部 = ① 건축사법 동시행령·규정 개정연구
 ② 건축법과 관련한 규정 모순점 연구
 ③ 전통건축 계승발전 계획·技法연구

- ④ 건축사 報酬料率 개정작업
- ⑤ 6월중 건축사 교육 실시계획
- ⑥ 기타 倫理關係 및 질의회시
- ⑦ 국가기술자격법 개선 건의

△出版事業部 = ① 會誌 改善案 수립실시
 ② 우수건축자재 전시계획 수립
 ③ 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④ 海外시찰단 파견계획 수립
 ⑤ 廣告未收金 정리
 ⑥ 기타 미결업무 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協會 운영에 대한 「양케이트」결과 —

□ 協會事情 잘알고 事務처이해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協會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회원에게 그 의견을 물은 設問에 대한 응답내용이 밝혀졌다.

지난 3월16일 본회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工事監理團 구성문제를 비롯한 회원권익 옹호에 관한 設問과 協會運營에 대한 設問등 모두 4개항에 이르는 設問에 대한 의견을 종합,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번 「양케이트」조사결과 회원 대부분이 협회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사무처의 노고를 이해하고 있고, ① 협회에 연구기구를 설치해서라도 회원복지 및 권익옹호에 힘써줄 것과 ②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법규개정에 힘써줄 것 ③ 건축업무수행에 따르는 제반 난제들을 당국과 협의 해서 개선해줄 것 ④ 지역간 업무처리에 마찰이 없도록 해줄 것과 그밖에 會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設問別 分析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工事監理團 構成에 대한 意見

贊 : 법개정 해서라도 구성돼야(44%)
 反 : 설계자가 監理해야, 不必要(44%)

공사감리단 구성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찬성(44.3%)과 반대(44.8%)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다소 우세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실감케 했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대체로 설계자가 監理를 해야 함으로 공사감리단의 구성은 필요없으며 不合理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① 원칙적으로 設計者가 監理해야하고 ② 設計와 監理者가 분리될 때는 不和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이 순서대로 그 이유를 들고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계법을 改正하여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고 그 운영을 支部 및 地域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細部的으로 ① 법 개정에서 분리해야하고 ② 지부 및 지역단위로 운영 ③ 감리를 제도화해서 소득증대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차례로 하고있다.

그밖에 직접적인 찬반의사보다 계속 연구해야할 문제이고, 협회방침에 따르겠다는 의견도 낮은비율(5.1%)이지만 보여줬다.

2 福祉年金制度에 관한 意見

贊 : 條文化해서 실시해야, (73%)
 反 :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25%)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비에서 1%씩을 予置해서 복지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정관에 條文化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의견에 대한 반응은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72.9%)이고 반대하는 쪽은 다소 적은(25.3%)면을 보였다.

찬성쪽의 주장은 정관에 條文化해서 支部 및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지부 및 지역단위로 실시키위해 정관에의 명시가 필요하다

淨化운동 전국확대

—支部別 4 월중 활약커—

정의 사회 구현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범국민운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화운동에 앞장서는 본회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추진키 위해 각지부별 실시내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지난 4 월중에도 지부별로 청탁배격, 불우이웃돕기, 대민봉사, 각종 위문활동 등을 전개 본 운동의 토착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부별 활약상을 보면 서울지부의 경우 △청탁풍조배격을 위한 회원 서명운동을 벌여 3 백11명이 참여했고, 슬라이드를 통한 교육을 실시해서 성과를 올렸다. 또 市民 봉사를 위한 건축상담을 해서 모두 78건의 실적을 쌓았다.

부산지부도 △청탁풍조배격 결의대회와 서명대회를 열었으며, 자연보호 운동과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 못박았다.

그밖에 이 제도와 관련하여 정회원의 회비인하, 저축사업 및 노후대책이 되며 다소 목적을 바꿔 실시해서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대의견을 보인 경우에는 이미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정관까지 고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이고, 그밖에 부담이크고, 회원복지에 이바지 된다는 보장 없지않느냐는 의견도 내놓고있다.

물론 무응답도 1.8%의 비율을 보여줬다.

③ 협회歲入을 회원의 月定會費로 하는것을 희망하는가?

月定會費로 歲入충당 (35%)

実績會費를 올려서라도 (63%)

협회歲入충당에 관한 설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의견을 물었다.

설문요지는 昨年度 세입실적을 감안할 때 올 1월의 경우를 참작해서 약 50%의 減少率이 예상되고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가) 月定회비(약 3 만원정도)로만 충당하는 案과 (나) 実績會費를 現0.5%에서 1%로인상해서라도 충당하는 案으로써 의견을 모았다.

응답 결과는 (가)항의 경우가 35.3%의 찬성율을 보였고 (나)항의 경우는 63.1%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가)항을 지지한 쪽의 所見은 ① 実績會費로 충당할때 稅務資料化되는 점이 있고, ② 同等한 입장에서 회비도 一律的으로 내는것이 좋으며 ③ 세입원이 고정되어있으면 협회운영상 안정성이 있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나)항의 경우는 收益者부담원칙으로 실적회비로의 충당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① 현행대로 수익자가 부담하

는게 좋고 ② 月定회비만으로는 부담이크며 ③ 회원권익 보호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고 ④ 협회운영에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밖에 実績회비만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면 기구를 축소해서 예산규모를 줄이라는 의견도 (1.0%)없지 않았고 아예 침묵을 지킨 의견(?)도 (0.6%)있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이상과 같이 많은회원이 실적회비를 올려서라도 세입을 최소한 종래 수준선으로유지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협회활동에 대한 회원의 기대가 큰것을 반증하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月定회비만으로 충당한다는 안의 중심 의견은 세입에 따라 협회살림이 유동적이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회원권익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보다 지속적이고 견실하게 협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예산(세입)으로 규모있게 집행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이다.

④ 協會誌 “建築士”에 대한 意見

관심도 있고, 많이 보게하고, 등정기사 넓혀라.

회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럴듯한 會誌로 “建築士”誌를 꾸며보자는 뜻으로 한 마지막 5 번째 설문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② 회원이 아니라도 관련인사에게도 나눠주고 ③ 회원에 대한 動靜記事를 넓히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④ 현재 상태도 좋다 ⑤ 회지는 회원에게만 배부하자 ⑥ 읽지도 않고 관심도없다 등 차례로 꼽혔다.

첫번째로 많은 응답을 해준 관심도 측정 결과는 회지의 규모나 이용도가 회원들의 업무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문사항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읽게해야하고 또 기사내용도 회원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꾀하기 위해 動靜기사·소식등을 보다 넓혀달라는 요청이었다.

경기지부는 △보수액 부당덤핑, 공사감리 불성실 행위를 지적 단속했고, 자율정화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광원지부도 스자체 정신교육으로 이 운동을 심화하는데 주력한데 이어 장애인 돕기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모은 성금 15만원을 춘천방송국에 기탁했다.

충북지부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각종 부당행위 근절에 힘쓸것과 정신교육을 강화 실시했으며 충남지부도 △청탁행위배격, 근점절약 실천 등을 적극화하기로 했고 불우이웃 돕기를 벌여 성금 52만원을 모아 이들을 도왔으며 군경 위문활동도 벌였다.

전북지부의 경우 △청탁풍조배격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자연보호와 불우이웃 돕기운동을 벌여 10만원을 전주방송국에 맡겼다. 전남지부는 △정화대상자를 색출해서 단속했다.

경북지부는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고, 장애인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2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기탁했다. 경남지부도 △간담회 개최와 청탁배격 간판을 설치해서 1개월간 장치했으며 그밖에 자체교육도 실시했다.

제주지부는 △청탁배격 토론회를 비롯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불우이웃 및 장애자를 위한 성금 17만 4천원을 지원했다.

建築士도 技術士試驗 應試資格 줘야

- 검정공단에 경과조치 연장등 건의 -

본회는 現行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면허소지자의 技術士자격취득을 위한 應試가 不可한 것을 시정토록 한국 기술검사공단에 건의 했다.

지난 9일 본회는 현행 기술사자격시험제도가 건축사보다 기술적인면에서 미숙한 건축施工技術士는 기술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경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월등한 건축사는 응시자격조차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制度的 모순을 시급히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시행령부칙 제 4 조(기술자격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로 오는 12월말까지만 대학 졸업 후 7년이상 경력자가 기술사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있어, 오는 82년 1월이후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2급을 소지한 자로써 해당실무경력이 없으면 同試驗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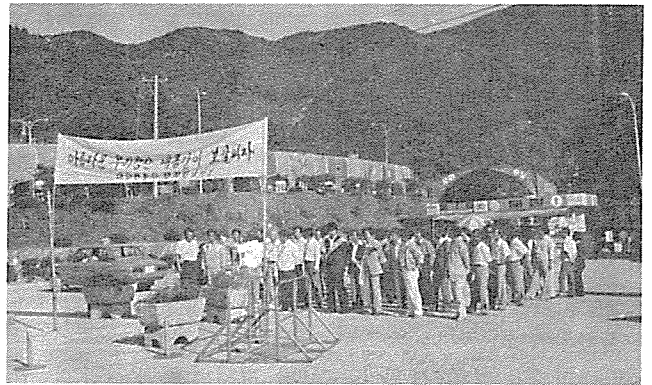
따라서 본회는 내년이후 건축기술인력의 質·量的인 감소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同法의 경과조치 연장이나 건축사의 기술사자격취득시험응시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自然保護運動實施

- 전남광주회원전원참가 -

전남지부에 소속돼있는 광주회원 85명은 근교 芝山유원에서 자연보호운동을 벌였다.

아침 10시부터 실시된 이번 자연보호운동에는 광주지역회원 전원이 참석해서 단합된 면모를 과시했으며 일요일 하루를 뜻깊게 보냈다.



全南道政 懇談會 가져

- 회원권익신장위해 지부서 -

전남지부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을 위해 전남도청 관계자들과 道政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정확한 지역사회 實情파악을 통해 회원의 권익 보호를 꾀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관계 당국과의 의견교환과 유대강화키 위한 이번 모임에는 道建設局長을 비롯한 관계자와 본 지부장 및 임원등이 참석했다.

지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全南道=洪起準(建設局長) 奉石鎬(地域計劃課長)
全相喆(都市係長)
- △支 部=金暎植(支部長) 洪鍾植(任員) 鄭炳汶(任員) 崔秀一(任員)

